

쌀값안정을위한수매정책촉구건의안채택의견

의안 번호	제181호
----------	-------

발의년월일 : 2004. 10. 5.

발 의 자 : 이석원의원의외 12인

1. 주 문

- 우리 충남 예산은 비옥한 농토와 알맞은 기후 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쌀생산 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음.
- 그러나 현재의 농업정책은 세계무역기구(WTO)협정으로 기존의 쌀산업 전면 수정 및 정부 수매량이 감축되고, 정부 수매기능이 약화되어 가는 상황에서 농민들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과 어려움이 가중되어 가고 있음.

2. 제안이유

-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있으며, 또한 올해정부 수매가도 작년에 조곡40kg 1등 기준 60,440원이었던 것이 58,020원으로 2,420원 하락하였으며, 농협 자체 매입가격은 51,000~53,000원으로 가격차가 5천원이상 되고 있어 쌀값은 작년보다 5%이상 하락한 실정임.
- 또한 정부 수매기능 약화에 대비하여 쌀 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농협이나 미곡처리장이 정부 수매기능을 보완하여 왔으나 우리 예산의 경우 농협 및 미곡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 누적으로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군민의 뜻을 관계 요로에 건의코자 함.

쌀값 안정을 위한 수매정책 촉구 건의문

존경하옵는 「허상만」 농림부 장관님!

국내외 어려운 여건 속에서 농업 발전과 농업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예산군은 비옥한 농토와 농사에 알맞은 기후조건으로 군민의 40%가 농업에 종사하는 전통 농업군으로 '97년부터 연속 단보당 쌀 생산량이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등 농업발전에 일익을 담당해 왔습니다. 특히 금년 봄의 사상 유래 없는 폭설피해에도 농업인을 비롯한 전 군민이 힘을 모아 알차고 슬기롭게 극복한 결과 기상이변이 없는 한 대풍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농업을 천직으로 생각하고 보다 품질좋은 농산물 생산을 위해 노심초사 전력을 다해온 4만여 농업인들이 땀과 노력으로 일구어 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풍년의 기쁨을 누려 보기도 전에 “쌀 대란, 재고량 급증, 쌀 산업 전면 수정” 등 쌀값 하락을 기정 사실화 하는 정부와 언론의 발표로 우리 농업인들의 가슴은 더욱 타들어 가고 한숨과 허탈감으로 정부의 미곡정책에 대한 불신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은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2003년도의 정부 수매가는 60,440원(조곡 40kg 1등 기준), 금년에는 58,020원이며, 농협 자체 매입가격은 51,000~53,000원으로 가격차가 5천원 이상 되고 있으며, 쌀값은 작년보다 5%이상 하락된 실정입니다.

또한 WTO협정으로 정부 수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축되고 정부의 수매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미곡종합처리장은 쌀산업의 핵심시설로 다소나마 농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해 왔으나 우리 예산의 경우 2003년 상반기 결산결과 농협 및 미곡종합처리장 5개소 전체가 적자 누적으로 쌀 매입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금년 수확기의 쌀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범 정부차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를 실천하여 주실 것을 10만 군민과 함께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 첫째, 올 가을 미국중합처리장의 자체매입 및 농협 시가매입 물량에 대하여 수매가와와의 차액을 보전하여 농가의 실질적 소득 보장을 건의합니다.
- 둘째, 쌀값이 계절별로 등락이 많은 점을 감안하여 정부 구매 물량을 최소화하며, 정부 재고량에 대한 대북 지원 등을 모색하고, 정부 보유미와 의무 수입쌀(MMA)등을 가공용으로 저가 공급하여 쌀값 안정을 도모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 셋째, WTO협정에 따른 정부수매 한계를 감안하여 현실적인 대안인 각종 직불제 등을 확대하여 근본적인 농가 소득 보장 대책을 건의합니다.
- 넷째, 미국중합처리장 자체 매입 계획량 121천석을 전량 매입할 수 있도록 현재의 정부지원 운용자금 30%이내 지원에서 전액 자금 지원을 건의합니다.

2004년 세계무역기구의 쌀 재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방폭 확대가 불가피할 전망이라고는 하나 “식량 안보”의 핵심인 쌀마저 가격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결국 농민들의 쌀 농사 포기를 유도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전 국민의 주식이자 우리 농업인들의 주 소득원인 쌀 농사의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시어 이 건의사항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특별히 배려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2004년 10월 5일

충청남도 예산군의회 의원 일동

의 장 이회운	부의장 권국상	의 원 조기덕	의 원 신영균
의 원 김승기	의 원 이석원	의 원 강연중	의 원 전태수
의 원 이한두	의 원 이덕규	의 원 이민복	의 원 이만우
의 원 김동숙			